

	<h2>보도참고자료</h2> <p>2020. 11. 21.(토) 배포</p>	
---	--	--

중등 교원임용시험 시행 상황 점검 (11.21. 10:00 기준)

- 총 11개 시험장, 60,233명 대상 시험 정상 운영 중
- 질병청이 통보한 자가격리자 (밀접접촉자) 142명 검사 결과 전원 음성, 별도 시험장 응시 조치
- 노량진 학원 관련 확진자 67명으로 증가, 응시 제한 조치 완료

- 교육부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1일 아침 08:30, 부총리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고, 별도시험장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.
- 금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은 110개 고사장 (3,076개 시험실)에서 60,233명을 대상으로 09:00부터 시험이 시작되었고, 정상 운영 중이다.
 - * (일정) 1교시 (09:00~10:00, 60'), 2교시 (10:40~12:10, 90'), 3교시 (12:50~14:20, 90')
 - 교육청은 자가격리 검사대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19개소 (시험실 122개실) 운영, 감독관 203명을 배치하여, 방역수칙*에 따라 시험을 운영 중이다.
 - * 응시생 보건용 마스크 착용, 2m 이상 거리두기, 감독관 방호복 착용 등 철저 준수
 -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, 체육교과 시험이 실시되는 일반시험장 및 별도시험장 등 24개 시험장에 구급차 21대, 구급대원 49명을 배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.

-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한 중등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노량진 학원 관련자는 총 604명으로, 이 중 확진자는 시험 전일 (20일 21:00 기준) 39명에서 67명 (21일 7:30 기준)으로 늘었으며, 검사 대상자는 537명으로 확인되었다. 확진자 증가는 밤사이 검사 결과 확인에 따른 증가이며, 해당 67명은 모두 응시제한 조치를 완료하였다.
 -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 수험생 전원에게 검사를 완료하였고,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응시자 142명에 대해서는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.
 -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체검사 대상자*(395명)는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시험장 등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.
 - * 학원 수강생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나, 검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 (질병청은 해당 학원 강의 수강생 전원)에 대한 검사 실시 통보
- 교육부는 시험이 완료되는 14:20까지 시도교육청과 긴밀 협조 등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.

